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 창립총회

법인정관·사업계획 등 5개 안건 최종 확정 내년 1월 출범... "시민주도 박람회 만들 것"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기관·단체·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취지문, 법인정관, 사업계획 등 5개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조직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조직위원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김성

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3인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허석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공동이사장으로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재단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고문에는 ▲허경만 전전남도지사 ▲최인기 전행정부장관 ▲허상만 전농림부장관 ▲송영수 전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을 선임했고, 부위원장에는 ▲고영진 순천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황금영 전남사회단체연합회회장을 선임했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2023정원박람회의 방향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엠블럼(EM)과 주제어(정원에 삽니다), 부주제어(나만의 정원)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포했다.

시민참여로 채택된 주제어와 엠블럼은 박람회 홍보 및 마케팅, 수익·취업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의 도심 확대이며 시민주도의 박람회를 만들 것이다"며 "정원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나아가 순천이 정원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린뉴딜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이달 중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마치고 내년 1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며, 출범 이후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 인력을 사무처로 파견해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고흥군, 귀농 귀촌 업무 전남도 종합평가 3년 연속 수상 쾌거

차별화된 정책 주목

고흥군은 최근 2020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민선 7기 출범 이래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에서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가구 유치실적, 자체 독립사업 추진 실적,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노력 등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후 3년 연속 수상한 시군은 고흥군과 장성군 2개 지자체뿐이라는 것.

특히, 고흥군은 민선 7기 이후 매년 늘어나는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과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귀향정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다양한 지원정책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들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상담에서 정착까지 함께 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귀농·귀촌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집들이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여수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총력'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여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타지역으로의 이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수능이 끝난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식품접객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및 식품취급기준 준수 여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2021년 보성 홍보맨은 누구?"

보성군, SNS 서포터즈 모집

보성군은 12월 24일까지 2021년 보성군을 홍보할 군민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군민 SNS 서포터즈는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축제·행사 홍보, 지역 명소와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기준을 충족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센티브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활동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며, 월 3건 이상의 게시물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민 SNS 서포터즈는 지역 로컬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해주시길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과 베이징, 5000리 너머 창업활성화 협의

순천시가 최근 중국 중관촌 사회조직원협회(비서장 타이자엔)와 한중창업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

비대면 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활용하여 순천과 중국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창업혁신센터 설치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먼저 한중창업포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베이징 정부가 개최하는 글로벌 창업대회의 예선을 순천에서 치르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지원센터를 베이징에 설립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미 예산과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순천시 베이징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올해 다양한 성과

㈜포스리젠, '도전K-스타트업' 최우수상 ㈜예움, 기술창업 지원사업 TIPS 선정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소속 벤처기업들의 금년도 다양한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도전 K-스타트업' 최종 왕중왕전에서 올해 5월 신규 창업한 ㈜포스리젠이 '최우수상'(중기부 장관상·상금 7천만 원)에 선정됐다. (㈜포스리젠(대표 오범진)은 부산물

을 활용해 친환경·고성능 시멘트 혼합재를 개발해 포스코 사내벤처 1호로 사업화에 성공해 창업 5개월 만에 매출 5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벤처밸리협의회 기업인 ㈜예움(대표 고대균)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지난 12월 1일 최종 선정됐다.

㈜예움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산업합기시설을 제조하는 회사로 이번 TIPS 선정을 계기로 2019년 창업 이래 직원 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